

한국 초등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3년 한국 초등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6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기획 세션과 자유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초등교육의 현장 이해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적 자극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기획 세션에서는 최근 학교현장과 사회현상 연구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연구방법인 생애사 연구방법(Life history method)에 대하여 심도 깊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크게 세 개의 발표로 이루어진 기획 세션에서는 먼저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저술을 하신 이동성 교수가 생애사방법의 전반적인 이론과 해석적 전략에 대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영국 교수가 생애사 탐구를 위한 심층면담과 초상화기법(portraiture)의 질적연구에 대하여 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외솔 선생이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다룬 텍스트 <초임교사는 울지 않는다>가 미래의 교사들과 현직교사들의 자기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자신의 강의 경험에 비추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표 1 (기획 세션)

초등교육학 1	13:30 - 15:00	생애사 연구방법의 이론과 전략	이동성 (전주교대)	강현석 (경북대)
		생애사 면담의 가정과 기법들	전영국 (순천대학교)	
		교사 연구자로서 생애사 연구의 교육학적 의미 탐색: 생애사 텍스트로서 『초임교사는 울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김외솔 (제주대학교)	

다음으로 자유 세션에서는 세 개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첫째 주재홍 교수가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의 함양을 위한 비판적 논의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 뿌리 박혀 있는 백인주의와 앵글로 색슨주의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인종을 위한 다문화 사회에 그 어떤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된 영향력과 심리적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기 위한 우리 교육학 연구자들의 비평적 작업이 어떻게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의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이수영 교수의 초등학교에서의 팀 학습전략의 구체적 적용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OECD국가 중에서 협동심과 이타심이 가장 낮은 한국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수업방법으로서 팀 학습전략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실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재조정될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적 연구 자료들에 기초하여 소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는 현장교사들의 다문화 아동 지도 경험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사들이 알아야 하는 현장작업의 다양한 이슈들과 딜레마들에 대하여 다룹니다. 약 1년 동안의 경남 초등학교 다문화 아동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1:1 개별 지도를 해 온 초등학교 세 명의 교사가 인종적으로 다른, 문화적으로 다른, 언어적으로 다른 한국의 다문화 아동들의

만남을 통하여 경험한 여러 가지 지도의 문제, 대화의 문제, 재현의 문제, 그리고 라포르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표 2 (자유 세션)

주요이야기 2	15:20 - 17:00	다문화주의, 탈식민주의 그리고 학교교과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비평의 준거들	주재홍(진주교대)	최미정 (조선대 학교 간호대)
		초등교육에서의 팀기법 학습 모형의 개발과 현장적용 연구	이수영(서울교대)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 아동 가르치기: 현장작업의 경험과 딜레마들	황철형 (진주교육대학교 강사) 박 현우, 박 창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